

# 양적 팽창에 질적 성장이 뒤따르지 못한다

어린이책 전문서점인들이 말하는 어린이책 시장



한 어린이전문서점의 내부.

기저귀를 찬 아이들이 뒤통거리며 서가를 누빈다. 게다가 소리까지 맘껏 지른다. 마음에 드는 책을 잔뜩 골라놓고 나지막하게 낭독하기도 한다. 그런데 실컷 읽고 나더니 그냥 간다. 일반 서점이라면 보기 어려운 모습들이다. 하지만 어린이전문서점에서는 이것이 일상이다. 이런 예사롭지 않은 일상을 이끄는 어린이전문 서점인들을 만나봤다.

## 동네 사랑방 · 도서관 역할 자임해

혹 차이가 있을까 해, 일부러 주택가와 상업지구의 어린이서점을 골랐다. 서울 화곡동의 '동화나라'는 신축한 연립이 출선 전형적인 주택가에 초등학교를 낀 어린이전문서점이다. 경기도 광명시의 '동원'은 변화한 철산 상업지구 한복판에 있다. 하지만 서점에 들어서는 순간 서점의 지리적 환경, 입지조건 뭐 그런 것은 이내 사라져 버린다. 황홀경에 취한 어른 아이의 모습이 판박이다. 어른은 마음이 자유롭고 아이들은 뽀짝이 편안하다.

동화나라 이영란 대표는 어린이전문서점연합회 회장이다. 1993년에 문을 연 지 벌써 9년. 어린이전문서점업계에선 고참 격이다. 운영은 달리 하지만 동화나라 지하에 소극장이 있어 주말다 다양한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5년 전에는 정말 팔 책이 없었다. 그런데 근래 2~3년 동안 시장 전체가 성장하더니 책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양이 질을 담보하지 않으니, 선뜻 골라 들 수 있는 책은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다."

동원의 정의신 대표도 9년차. 일산 동화나라와 더불어 지역에 든든히 뿌리박은 대표 서점이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하는 말을 그제도 어제도 들었다. 아마 내일도 들을 것이다. 동원은 내일도 있을 테니까." 뿌듯한 자신감이 넘친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떤 아이는 탐내던 포스터를 얻어 갔다. 질문쟁이 아주머니도 두 아이와 함께 어김없이 들렸다. 동원은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의 사랑방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어린이서점의 주인들은 새책이 어서 아이들의 손길과 침침에 너털거리길 바라는 것 같다. 아이들이 눈높이에 맞게 진열한 책을 입속에 넣고 우물거리던 손으로 꺼내 봐도 좀체 흔들리지 않는다. 스스로 경제관념이 없거나 장사에 소질이 없다고 말하는 어린이전문서점 주인들이 많지만, 동네 사랑방이나 도서관으로 선뜻 내놓는 모습이 여느 서점과 확연히 다르다.

## 시장과 서점의 밝은 미래 예견해

어린이전문서점을 운영하는 이들이 어린이책 시장에 대해 내놓는 견해는 어린이책 시장의 활황, 어린이전문서점의 밝은 미래, 단행본의 강세로 집약된다.

그들은 어린이책 출판사, 작가, 독자가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말한다. 그들이 소비하는 책들도 몇년 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다. 이영란 대표는 "출산을 감소는 시장을 위축시키기는커녕 과잉 관심을 유발해 수요와 소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며 한 아이에게 집중 투자하는 현실을 설명한다. 조기교육 열풍은 어린이 외국어책 시장을 확장하는 데도 일조했다. 이런 현상은 전사회적 흐름으로 어린이책 시장 확대를 떠받치고 있다.

도서정가제 파괴, 온라인서점의 공격적인 경영, 어린이도서대여점 성업은 어린이전문서점의 최대 난관으로 꼽힌다. 그러나 일산 동화나라 정병규 대표는 "어린이전문서점 12년 역사에 호황기는 없었다. 이는 특별히 불황기도 없었다는 말이다. 즉 지금도 해볼 만한 여지와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며 '어려운 시기'라는 표현조차 단호히 거부한다. 오히려 서점인들의 자성과 자구책 마련이 긴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정의신 대표는 "좋은 책과 그 책을 찾는 독자들이 있다. 서점인들은 지역과 연대를 모색하고, 서점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성과를 거둔 곳도 많아, 어린이전문서점의 미래를 충분히 낙관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책이 학습도구나 갖춰야 할 대상의 자리에서 물러날수록 전집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는다. 정보력으로 무장한 독자들이 글, 그림, 편집, 제본 등 세세하게 책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전집의 매력도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집을 풀어 팔지 않던 출판사들이 이런 독자들의 요구에 맞춰 전집을 단행본으로 새롭게 출간하고 있는 현상도 지적한다. 이영란 대표는 "지역에 따라 방문판매, 정보 부족 등으로 전집수요가 아직 있지만, 이들 수요가 단행본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한다.

드나드는 발걸음에 어린이전문서점은 어느새 문턱이 다 닳았다. 일산이나 광명처럼 서점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 건강한 어린이책 시장과 어린이전문서점을 지키는 일은 어린이책을 만들고 팔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몫일 것이다.

—차정신기자